

# “영광과 좌절 잇는다...올 시즌 새롭게 태어날 것”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 개최

3년차 맞은 이범호 KIA 감독, 당찬 출사표 던져 개막전 선발 제임스 네일...수비·불펜 반등 기대

“영광과 좌절의 시간을 넘어 단단해진 만큼, 올해는 더 나은 야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26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에서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이 감독은 “KIA 타이거즈는 최근 2년간 영광과 좌절을 다 경험했다”면서 “올 시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한팀을 이뤄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시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감독은 오는 28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SSG와의 개막전에 나설 선발투수로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을 지목했다.

2024시즌 KBO 리그에 데뷔한 네일은 명실상부 KIA의 ‘에이스’다. 그는 데뷔 첫해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149.1이닝 12승 5패 138탈삼진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했다.

주 무기인 스위퍼를 앞세워 평균자책점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승왕까지 노려볼만한 기세였지만, 시즌 후반 부상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한국시리즈에서는 2경기(1차전·4차전)에 선발로 나서 1승 13탈삼진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팀의 통합우승에 일조했다.

2년 차인 지난 시즌에도 견재함을 과

시하며 한층 더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인 네일은 팀의 1선발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27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164.1이닝을 투구, 8승 4패 152탈삼진과 WHIP(이닝당 출루 허용률) 1.07을 기록했다. 그 결과 네일은 KBO리그에서 2시즌 동안 20승 9패 290탈삼진 평균자책점 2.38이라는 믿기 힘든 활약을 보여줬다.

올해로 KBO리그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네일은 스프링캠프부터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연습경기 기간 한화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쾌투했고, 두 번째 등판인 LG전에서는 2이닝 1실점을 했다.

최근 막을 내린 시범경기에서는 8.2이닝 7피안타 5사구 6탈삼진 4실점 평균자책점 4.15의 성적표를 받았다. 비록 첫 등판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지난 21일 두산베어스전에서는 선발 등판해 5이닝 2피안타 2탈삼진 2사구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선보였다.

개막전 상대인 SSG는 미치 화이트를 개막전 선발로 지명했다.

KIA는 2024시즌 통합우승 이후 2025시즌 고배를 마셨다. 이에 올 시즌 반등을 위해 스프링캠프부터 실전 위주의 담금질을 펼쳤다.

특히 수비 강화에 온 힘을 쏟으면서, 지난 두 시즌 간의 최대 실책 불명예를 씻기 위해 노력했다.



감독 이범호



대투수 양현종



주장 나성범

그 결과 올해 시범경기에서는 단 3개의 실책으로 10개 팀 중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펜에서도 김범수와 김시훈 등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그렸다.

이 감독은 “올 시즌 KIA는 1차 캠프부터 한층 더 단단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담금질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밥만 먹고 수비만 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시범경기에서도 선수들이 그간 훈련에 걸맞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공격력으로 경쟁하던 야구와는 다르게 올해는 수비력과 불펜

력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완벽한 시즌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올 시즌에 앞서 KIA는 박찬호와 최형우가 이적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다. 개막엔트리 포지션 구성에도 고민이 생겼지만, 이 감독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감독은 “고민되는 포지션은 없다. 선수들이 준비를 잘했다. 시즌 중간 고민되는 포지션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과 팬분들의 응원을 받고 좋은 경기력을 펼쳐보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해 가을야구를 하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 올 시즌은 지난

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시즌을 만들겠다. 꼭 가을야구에 진출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감독과 함께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주장 나성범과 양현종 역시 승리를 향한 열정을 드러냈다.

나성범은 그간 정규리그에서 매년 부상 공백이 있었지만, 올해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몸 상태는 좋다. 이번 주말부터 정규리그가 시작되는데, 10개 구단 선수들이 패어플레이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 드리는 시즌을 보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매 시즌 새역사를 작성하고 있는 ‘대투수’ 양현종 또한 팀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양현종은 “개인적인 기록은 생각해보지 않다. 올 시즌 제가 나가는 게임만큼은 꼭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경기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KIA는 올 시즌 공약으로 팬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행사를 예고했다.

나성범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안에 카페가 있다. 이곳에서 선수들이 직접 빵도 굽고 커피도 내리면서 팬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유소년재단이 지난 25일 광주축구전용구장 2층 대표이실에서 도경건설(주), 광주 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정 기탁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FC 유소년재단

## 광주FC 유소년재단, 축구 인재 육성 강화 도경건설·광주 사랑의열매와 기부금 전달식

광주FC 유소년재단이 도경건설(주), 광주 사랑의열매와 지역 축구 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6일 유소년재단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축구전용구장 2층 대표이실에서 도경건설(주), 광주 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정 기탁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노동일 유소년재단 이사장, 신현국·박정연 도경건설(주) 대표, 노진석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해 유소년재단에 기부금 전달과 함께 지역 스포츠 발전 및 사회공헌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도경건설은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정기탁 방식으로 후원을 진행했다. 해당 기부금은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축

구 인재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 유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유소년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일 유소년재단 이사장은 “지역 내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뜻을 모아 주신 도경건설과 광주 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립니다”며 “유소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남 체육 꿈나무들, 지역 빛내는 선수로 성장하길”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전국소년체전 대비 선수단 현장 격려  
검도 등 27개 종목 예선 진행...경쟁력 강화·유소년 육성 집중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격려에 나섰다.

전남도체육회는 26일 함평야구장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위한 선발전을 치르고 있는 전남 유소년 야구 선수단을 찾아 선수 및 지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종목별 선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해 이뤄졌다.

현재 수영, 야구, 축구, 태권도 등 총 27개 종목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위한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 참가하고

있다.

종목별 선발전은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각 경기장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송 회장은 선발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도체육회는 야구를 시작으로 선발전 기간 동안 종목별 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단체종목 경쟁력 강화와 유소년 선수 육성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유소년 선수 한 명 한 명이 전남 체육의 미래다. 그동안 준비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전남도체육회도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26일 함평야구장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위한 선발전을 치르고 있는 전남 유소년 야구 선수단을 찾아 선수 및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 코트디부아르 철벽 뚫어라...홍명보호, 첫 승 도전 내일 영국 밀턴킨스 스타디움MK서 평가전

홍명보호가 ‘가상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월드컵의 해 첫 승리 사냥에 도전한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밀턴킨스의 스타디움MK에서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는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상대할 남아공을 염두에 둔 ‘스파링 파트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한국(22위)보다 15계단 아래인 37위에 있지만, 전력을 놓고 보면 절대 뒤지지 않는

상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원어 아마드 디알로를 비롯해 오일퐁 코수누(아탈란타), 이브라힘 상가레(노팅엄 포리스트), 니콜라 페메(비아레알) 등 빅리거들이 전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예선 F조에 서 8승 2무 2패의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본선행 직행 티켓을 따냈다. 10경기에서 25골을 넣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철벽 수비’를 과시했다. 아

프리카 예선에 참가한 54개국 중 무실점을 달성한 팀은 코트디부아르와 튀니지, 두 팀 뿐이다.

2006년 독일 대회부터 2014년 브라질 대회까지 월드컵 본선에 3회 연속으로 올랐으나 이어진 두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코트디부아르는 12년 만에 오르는 본선 무대에서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을 이루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다.

홍명보호가 이런 코트디부아르를 잡는다면 남아공전 승리를 향한 자신감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 연합뉴스